

건축의 날 제정과 향후 과제

The Inauguration of "Day of Architecture" and the Remaining Tasks

제정 과정

우리협회를 비롯한 FIKA 3단체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주택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에서 주관하는 '2005 건축의 날' 행사가 오는 9월 23일 오후 4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새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UIA에서 10월 첫째 주를 세계건축의 날로 제정한 것이 1996년이니 10년만의 일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 모두가 경하해야 할 날이다.

건축의 날은 건축학회에서 구상하여 작년 10월 전 우리협회 송수구 회장 직무대행(2회 모임부터 김선양 이사로 교체, 금년 4월 5차 회의부터 필자로 교체)과 건축가협회를 대표한 최동규 홍보이사 그리고 김영하 학회부회장(위원장) 외 2인 등 5명이 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4월부터는 11명, 7월부터는 32명,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의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별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첫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이렇듯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했으나 학회 위주의 운영으로 모든 건축인의 공감을 사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회의록을 보면 첫 모임에서 FIKA 3단체가 예산의 공동출연 등을 결의한바 당연히 공동주최가 되어야함에도 필자가 참석했을 때는 학회 단독 주최로 둔갑되고 행사도 학회창립 60주년과 함께 치르게 계획되어 있었다. 위원수가 5명에서 30명 이상 증가해도 우리협회나 가협회의 인원은 동결되었으며 분과위원회에도 홍보분야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학회회원으로 전원 총원되었다. 모건설사 임원 등 외부위원 3명은 무늬만 범 건축계를 표방하는 것이 된 셈이다. 제정배경문은 '학회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건축학회회원과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로 서두가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결국 필자의 주장으로 공동개최와 공적심사소위에 참여를 하게 되었으나 위원배정과 함께 예산의 비공개 등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다. 이 중에도 가장 심한 것은 위원회에 대한 학회의 균립이다. 주관이 학회지만 위원회는 엄연히 타 협회 회원까지 망라한 엄연히 독립의결기구인데,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학회의 말 한마디에 간단히 뒤집어 지고 있는 현실이다. 위에 기록한 제정배경문 서두 삭제의결의 회귀 같은 것이 한 예이다.

건축의 날 제정 아이디어는 금년으로 이미 5회 행사를 마친 토목의 날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건설인의 날과 별도로 토목의 날이 제정된바 이를 살펴보면 주최가 토목학회 단 한단체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틀이 잡혀가고, 대통령상은 물론 훈장까지 포상하고 있다. 학회가 독자적으로 주최와 주관을 하려하면서 이를 정상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마도 토목의 날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해와 용납은 다르다. 어느 한쪽이 베풀거나 우위에 선다면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없다. 주관은 주최자 모두에 대한 봉사이지 힘의 행사는 아니다.

건축인 모두의 공감을 얻어야 진정한 건축인의 축제로서 승화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단체의 독단이 아닌 범 건축계가 두루 참여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건축인의 선언은 와우아파트, 삼풍사고 등에 대한 자성(自省)과 대국민 사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건축이 목적에 맞게 완성되고 사용하려면 설계자와 시공자가 필요하다. 또한 그 근저에는 이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필요하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완벽한 것이 창출된다. 따라서 FICA와 건설협회는 당연히 주최자가 되어야하고 항상 주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건축관련단체가 모두 주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주최자와 후원자로 나눌 것인지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일로 사료된다.

건축의 날, 날짜는 최선인가

경복궁의 창건일을 건축의 날로 삼은 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는 제정날짜의 역사적 고찰에서 주장하는 '조선의 정궁'이라는 의미보다는 현존 건물들이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이후 1800년대 중반 대원군에 의해 중건되기는 했어도 전통건축물, 특히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건축물이 많이 존재하며, 영역이 넓은 점에서 그 타당성을 부여하고 싶다. 그러나 민중사학자나 진보적 역사관은 궁궐을, 백성들을 착취한 절대왕조의 본산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국민 모두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에는 그 타당성이 완벽하지 못하다. 이에 비하여 1962년 1월에 제정된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필자의 참석 전 회의에서 이문제도 거론되었으나 '기념일은 10월 전후'라는 조건 때문에 일찍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타 기념일을 보면 국회 상정일이나 법안제출일 등을 택하기도 하는 바 좀 더 조사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인의 선언, 무엇을 담아야하나

프로그램을 보면 기념식 중 건축인의 선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민족의 독특하고 유구한 건축문화의 전통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 우리는 건축문화 창달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자 건축의 날을 제정하고 다음사항을 다짐한다'라는 전문아래 첫째, 문화 창달의 주역으로 쾌적한 조형 환경의 건설 둘째, 지역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간위주의 정주지 설계 셋째, 다차원적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관계전문가들과의 합심 협력 넷째, 첨단기술의 개발과 적용 다섯째, 긴밀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여섯째, 전문적인 건축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마지막으로 긍지를 갖고 국가 사회 국민에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필요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최선을 다 했느냐가 문제이지 이미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며 희망하는 사항이다. 당연한 것을 미사여구로 만들어 외치느니 차라리 전후 폐허에서 오늘의 도시를 가꾸기까지 불철주야로 노력한 우리를 자찬하며 그에 앞서 와우아파트, 삼풍사고 등 부실로 인한 자성과 대국민 사과 그리고 건축을 부동산가치로만 인식하는 편향된 국민의식과 건축을 문화로 보지 않는 대부분 공무원들의 무지를 계도하여 건축을 보는 눈높이가 국민과 함께 할 때까지 노력을 경주하자는 것이 한결 진솔하고 미래지향적인 선언문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건축을 보는 눈높이를 향상시키는 것이
건축문화의 향상이며 건축의 날의 진정한 의미이다.

모두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행사프로그램을 보면 식전행사로 오후 2시부터 국립박물관 건축에 대한 설명회가 있고 이어서 유명인사의 특강이 있다. 기념식은 5시부터 1시간, 이어서 리셉션이 있다. 이와 별도로 건축작품 전시회를 같은 장소에서 하루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념식은 관계장들의 축사와 포상식이 대부분이며 참석인원은 500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당일의 기념식행사가 어디나 대동소이하나, 부대행사가 당일의 작품전시회로는 너무나 초라하며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면이 있으며, 비경제적으로 출품자들에게 부담을 준다. 이보다는 초등생들을 위한 내집 그리기,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모형 만들기, 국민대상의 건축과 관련된 수필이나 새집 살리기 공모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것들이 이어지고 이들이 전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각시도별로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축인과 국민 함께하는 건축의 날이 되어야 하며 이로써 건축을 보는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실질적인, 건축문화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에 건축의 날의 참뜻이 있다고 믿는다.

맺음 말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을 정리하면 첫째, 주최와 주관 그리고 후원 및 협력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관은 계속 학회가 할 것인지, 주최는 어디 어디로 할 것인지, 상설기구를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인적구성도 재고해야 한다. 누가 주관을 하던 분과위에 FIKA 3단체는 한명 이상의 위원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건축의 날 날짜를 정함에 있어 좀 더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하자는 것이다. 기념일 등을 보면 날짜를 바꾼 경우가 비일 비재하기 때문에 지금 것이 좋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변경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셋째는 건축인 선언에 대한 것으로 이를 무슨 헌장처럼 매년 같은 것을 반복하지 말고, 매년 그해에 맞는 표현을 건축의 날 선언문으로 채택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맞는 해에 어떤 내용이 적절한 것인가를 좀 더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인바 이는 첫해이니만큼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아쉬운 점이며 향후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1년 전부터 준비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온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의 날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각 단체에서 행하는 건축관계 행사도 가능한 한 함께 모아 건축의 날이 아닌 건축주간이나 건축의 달 행사로 치러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해묵은 건설사의 설계검업이 또 다시 부상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것을 가라앉히고 제각기 자기의 길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건축인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의 날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 땅에 진정한 건축문화가 꽃 피우는 그 날을 위하여. ㅁ